

장도어호(長島漁號)의 보호, 전승과 발전

노동대학 교무처장 지역국별학원 원장 장덕강(張德強) 교수

1. 서론

근래 경제와 사회의 빠른 발전으로 해도(海島)와 대륙의 연결이 날로 긴밀해지고, 특히 일련의 연륙공정(連陸工程) 건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해도가 "고도(孤島)"에서 "반도(半島)"로 변화하면서 해도의 속성이 점차 약화되고, 원래의 특색 있는 민(어)속 문화도 이에 상응하여 충격을 받아 일부 민(어)속문화가 소실의 곤경에 직면하고 있다. 어떻게 해도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며 그 더 나은 발전을 실현할 것인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현재 어민호자(漁民號子)는 생존환경 위축, 후계자 부족 등의 곤경에 직면하여 거의 절창(絕響)이 될 지경이다. 신시기에 어떻게 이를 보호하고 전승하며 발전시킬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이 이미 시급한 과제이다.

2. 어민호자의 기원 및 발전

(1) 어민호자 소개

어민호자는 구시대 어민들이 항해하며 고기잡이할 때 전통적인 해양포획 작업과 상응하는 것으로, 노동정보를 전달하고 노동을 조율하는 호령으로서, 노동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으며, 민심을 응집하고 단결을 유지하며 정서를 즐겁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것은 어민들이 노동하며 회포를 펼치고 감정을 교류하는 오락형식으로, 주로 어업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 예를 들어 하북의 진황도(秦皇島), 산둥의 교동반도(膠東半島), 상해의 송명(崇明)·보산(寶山), 절강의 주산(舟山), 복건 남부 연해 및 광둥, 광서 연해 등지에서 유행한다.

우리나라 연해지역의 어민호자는 목범선(木帆船) 시대에 성행했다. 옛날 범선의 동력은 전적으로 풍력과 인력에 의존했고, "선로대(船老大, 선장)"가 외침과 합성으로 "어령(漁令)"을 내려 생산을 지휘하면서 점차 선창(領唱)과 합창을 주요 형식으로 하는

어민호자가 형성되었다.

3. 어민호자가 직면한 곤경의 전방위적 분석

(1) 어민호자가 직면한 곤경

2008년 6월 14일, 국무원이 제2차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명록을 발표하면서 장도어호(長島漁號)가 그 중에 포함되어 전통음악(민간음악)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한 어민호자가 "국가급" 선정으로 인해 마땅한 보호, 전승과 발전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정반대로 어민호자가 직면한 처지가 날로 엄중해져 이미 실전(失傳)의 가장자리까지 이르렀다.

노어민(老漁民)의 소멸과 전승인 부족

도민(島民)들이 부를 줄 모르고,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음

(2) 곤경이 발생한 원인

어민호자의 예술형식이 단일하다는 내재적 요인 외에도,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어민호자의 생존에 거대한 영향과 충격을 가져왔다. 어민호자의 쇠락은 주요 원인이 경제의 발전이 어호(漁號) 원래의 생존환경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경제적 요인

(1)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의 전환

(2) 어호가 거의 경제적 효익이 없음

(3) 도시화의 빠른 발전, 어촌이 점차 사라지고 어민이 급감함

정치적 요인

비물질문화유산의 전승, 특히 어민호자는 종종 그 발원지의 제한을 받는다. 어민호자의 발원지는 어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해도, 반도가 많다. 해도가 내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자원이 단일하며, 생태환경이 취약한 등의 요소로 인해 그 문화의 발전이 큰 국한을 받는다.

(1) 정책의 후행성(後行性)

(2) 부서 간 조율 부족, 소통 연계 부족

사회문화적 요인

- (1) 발원지 규모가 작고 지명도가 낮음
 - (2) 인구 감소, 특히 청소년의 감소
 - (3) 해도문화가 아직 브랜드 효과를 형성하지 못해 외래 관광객의 문화 관심도가 낮음
 - (4) 점차 소실되는 방언
- 과학기술적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민호자 쇠락의 직접적 원인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예, 새로운 설비의 사용이 생산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원생태의 어업생산 환경을 변화시켜, 어민호자를 "피지불존(皮之不存), 모장언부(毛將焉附, 가죽이 없으면 털이 어디에 붙겠는가)"의 국면에 처하게 했다.

4. 신시기 어민호자의 전승 발전 방안

근년에 국가급, 지방급 비물질문화유산 신청을 계기로, 장도(長島) 등 연해지방정부, 어호 전승인 및 사회 각계가 어호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했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으로 어호가 직면한 곤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1) 어민호자 보호, 전승의 가치와 필요성

어민호자는 해풍 해랑(海浪)에 젖고 비린내를 띤 투해지가(闖海之歌)로, 국가의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이므로 전문적인 보호, 전승과 발전이 필요하다.

어민호자의 현재 정신적 내포

전통문화 발전의 필요

기타 어민호자 및 기타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참고의의

(2) 어호 보호, 전승과 발전의 모델

문화생태보호구 모델

체험휴양관광구 모델

"인터넷+어호" 모델

(3) 어호 보호, 전승과 발전의 경로와 방법

조율연합 경로 수립

(1) 구조발굴: 어민호자 기록자료의 건립 및 건전화

정부 문화부서가 주도하여 어민호자의 수집정리 구조보호 작업을 조직하고, 음악연구자와 애호가들이 어민호자 자료를 수집정리하도록 격려하며,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풍부한 제1차 자료를 축적한다.

(2) 정부부양: 전승인 보장메커니즘 및 관련 정책 완비

(3) 다원공진: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과 협력하여 어속(漁俗)전람관 건립

(4) 전승교육: 어민호자의 교육과정 진입

(5) 선전추광: 어민호자를 관광프로젝트에 추가

(6) 교류상호참고: 전국 어호연맹 건립

시장경로 개척

(1) 해도기억: 어가특색 관광기념품 설계개발

(2) "비유산(非遺)" 결합: "근친" 비유산 결합, 공연무대 진출

(3) "특색" 어가: 어속문화 요소 증가

(4) 어호 생존공간 제공: 어가특색소진(小鎮) 건립

참여경로 건립

(1) 전민참여: 전승대오에 신선한 혈액 주입

(2) "장봉요로(掌篷搖櫓)": "관광객이 어민으로 변하는" 새로운 체험

혁신경로 탐색

(1) 전승혁신: 어호 전승인이 어호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도록 격려

(2) 형상조성: 스토리성 강화, 매체를 이용한 어호 선전

(3) 매체혁신: 신흥기술을 빌어 전승, 발전

(4) "인터넷+": 어호를 "온라인"에 올림

① 젊은이를 위한 포스터: H5

② "손에 닿을 수 있는" 앱: 위챗 미니프로그램

③ 어호과학보급: 전국 어호웹사이트 건립

④ 어호 네트워크 저장: 어민호자 데이터베이스 건립

결어

장도는 환발해지역, 산동성 유일의 해도현(海島縣)이다. 현재 어민호자를 대표로 하는 해도어(민)속문화 전승이 후계자가 없어,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이 실전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설문조사, 인물인터뷰 등 실지조사를 통해 어민호자가 일련의 곤경에 직면했음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전승매체의 소실, 전승인 부족, 해도인구 감소 등이 포함된다. 곤경의 원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신시기 장도어호 보호, 전승의 가치와 의의를 탐토하고, 신시대의 정신적 내포를 부여했다. 어호 보호, 전승과 발전의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문화생태보호구 모델, 체험휴양관광구 모델, "인터넷+" 모델과 5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조율경로, 연동경로, 시장경로, 참여경로, 혁신경로를 제시하고, 침투성과 조작성이 있는 정책과 건의를 제시했으며, 특히 "관광객이 어민으로 변함" "인터넷+어호" 등 혁신적 사고방식을 제시했고, 관광객을 향하고 젊은 집단을 끌어들이는 마이크로 포스터, 위챗 미니프로그램 등을 설계, 개발했다.